



2016년 ACL 우승한 전북 현대.

전북, 2010년대 ACL '최고 클럽' 후보

전북 현대가 '2010년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최고의 클럽'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AFC는 3일(한국시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 권위의 클럽 대항전인 ACL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인 클럽을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5개 클럽을 추린 가운데 한국 클럽으로는 전북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북은 최강희 감독이 이끌던 2016년 우승을 차지하며 2006년 이후 10년 만에 ACL 정상에 탈환했다. 2011년엔 준우승했고, 지난해엔 16강전에서 상하이 상강(중국)에 승부차기로 졌다. 전북은 리그 3연패를 거두는 등 이미 국내에서는 당할 자가 없는 '절대 1강'이다. AFC는 "2016년 우승 이후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전북은 항상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라고 평가했다. 전북 이외에 2019년 우승팀 알 힐탈(사우디아라비아)을 비롯해 2013·2015년 정상에 오른 광저우 에버그란테(중국), 2011년 챔피언 알 사드(카타르), 2017년 트로피를 들어 올린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일본)가 후보로 경쟁한다.

'이중계약 논란' 서승재 태극마크 박탈



서승재

이중계약 파문을 일으킨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3)가 태극마크를 당분간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가대표 훈련에서 서승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대표 훈련 제외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의미한다. 경기력향상위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중계약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2일 인천국제공항과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틀 후 삼정전기과 계약해 물의를 일으켰다. 서승재가 올해 말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되면서 도쿄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승재는 국가대표팀 남자 복식에서 최솔규와, 혼합복식에서 채유정과 호흡을 맞춰왔다. 서승재와 최솔규는 남자 복식 세계랭킹 9위, 서승재-채유정은 혼합복식 세계랭킹 6위에 올라 있다. 도쿄올림픽 복식은 4월 말 발표되는 세계랭킹 기준으로 8위까지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위기 때마다 득점쇼... 거침없는 양효진!

3세트 공격성공률 58.33% 역전 발판
26득점 중 블로킹 4회... 전방위 활약
4세트 총돌에도 곧바로 일어나 투혼

'블로킹' 양효진(31·현대건설)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지친 기색이 없는 진정한 에이스다.

양효진은 지난 1월 큰 수확을 안고 현대건설로 돌아왔다. 2020도쿄올림픽 아시아예선에서 마지막 한 장 남은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대표팀 주축 선수로 뛰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투혼과 맞바꿔 얻은 성취감은 매우 컸다.

소속팀 복귀와 동시에 출발한 V리그 4라운드 양효진의 독무대였다. 라운드 전 경기서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지며 공격 종합 2위, 블로킹 1위를 차지했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해결사의 몫을 모두 해낸 그는 4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양효진이 버티는 현대건설은 굳건히 1위를 지켰다.

5라운드 첫 단추도 양효진이 직접 꿰었다. 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5라운드 원정 경기서 팀 내 최다 26점을 몰아쳐 세트스코어 3-2(14-25 16-25 25-20 25-15)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다. 1·2세트 흥국생명이 철저히 리듬을 빼앗기며 고전했지만, 3세트 양효진이 공격 성공률 58.33%로 8점을 올린 것이 반동의 발판이 됐다. 헤일 리가 저조했지만 양효진이 중심을 잡았고, 황민경과 고예림도 차츰 득점에 가세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4세트 21-19로 앞선 상황에서 블로킹을 하던 중 동료 고예림의 팔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



현대건설 양효진(오른쪽)이 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2인 블로킹을 피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양효진은 팀 내 최다인 26점을 책임져 3-2 역전승의 주역이 됐다.

다. 고통을 호소한 양효진은 이내 얼굴을 부여잡으면서도 몸을 일으켰다. 팀의 상승 흐름을 끊을 수 없었다. 4세트 중반 주전 리베로인 김연경이 발목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나간 직후에도 양효진은 바로 속공을 성공시켰고, 시간차와 오픈 공격

을 거듭 시도하며 팀 공격을 지휘했다. 세트 이다영도 양효진을 버팀목으로 삼았다. 5세트 3-2로 근소하게 앞선 상황에서 디그를 성공시킨 양효진에게 골장 공을 올렸다. 양효진은 오픈 공격을 시도해 득점으로 이어졌고, 이다영은 한

참동안 양효진을 끌어안았다. 양효진은 미소로 화답했다. 세트 종반 오픈 득점을 한 번 더 추가한 양효진은 이날의 매치포인트(14-10)를 만들면서 승리의 파랑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인천 |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아드리아노, 들고 돌아 '최용수 품으로'

(FC서울 감독)

서울, 계약기간 1년 공식 발표
중국 2부·전북 거쳐 친정 복귀



아드리아노

브라질 스트라이커 아드리아노(33)가 4년 만에 K리그1 FC서울에 컴백했다(스포츠투데이 2020년 1월 20일자 9면 단독보도).

서울은 4일 "왓살윙클' 득점기계 아드리아노를 영입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예고된 수순이다. 서울은 지난 연말부터 아드리아노의 영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꾸준한 접촉이 있었고, 겨울이적시장이 개장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사실 서울이 아드리아노 복귀를 무조건 추진한 건 아니다.

큰 부상 전력이 있어 몸 상태를 100% 살펴야 했다. 브라질에서 수 개월여 가장 개인훈련에 매진한 아드리아노는 지난해 중순 서울이 동계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포르투갈 알가브로 이동했고, 곧바로 폴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정성을 보였다.

여기서 서울 최용수 감독은 합격점을 줬다. 그런데 끝은 아니었다. 또 다른 과정이 남아 있었다. 국내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해야 했다. 다행히 의학적으로 정상 소견이 나왔고 세부 계약을 마무리하게 됐다. 발표가 늦은 것은 설 연휴 등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국내 거주증 발급이 지체된 탓이다.

돌고 돌아 K리그로 유턴한 아드리아노의 목표는 분명하다. '명예회복'이다.

처음 서울 유니폼을 입고 뒀 2015년 여름부터 이듬해까지 그는 43경기에서 25골

·7도움을 올렸다. 특히 201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13골, 정규리그 17골, FA컵 5골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이후 중국 갑(甲·2부) 리그 스좌장에서 한 시즌 몸담은 뒤 2018년 전북 현대에 안착했으나 잦은 부상과 아킬레스건 파열로 전열을 이탈했고, 지난해 계약해지에 이르렀다. 실전 공백 우려가 있으나 최 감독과 서울의 신뢰는 두텁다.

서울은 "아드리아노의 골 결정력과 순간 스피드는 트레이드 마크다. 뒷공간을 향한 침투 플레이와 온 몸으로 득점을 만드는 타고난 공격수"라고 표현했다. 베테랑 톱종 공격수 박주영과 세르비아 골키퍼 페시치와 함께 서울은 최상의 공격 옵션을 확보했다.

아드리아노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짧고 굵은 새 도전 의 각오를 전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호날두 노쇼 주최사 더페스타는 팬 1명당 37만1000원 배상하라"

관중 2명이 낸 손해소 원고 승소
향후 '노쇼' 다른 소송에 영향 전망



호날두

지난해 7월 한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와 관련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 제51 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유벤티스(이탈리아) 초청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최사가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호날두 노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티스 간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노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세계적인 스타 호날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축구팬 6만 5000여 명이 관중석을 채웠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호날두의 45분 출전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벤티스 선수단은 경기 예정시간 보

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믿었던 호날두 출전마저 성사되지 않으면서 팬들은 분노했고, 결국 민사소송과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이모 씨 등은 지난해 7월 말 "주최사가 (입장권 판매 당시 호날두 출전을 광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07만1000원(입장권 7만 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 원) 등 총 214만2000원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해 11월과 번번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